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 경로분석

서영숙, 정추영*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A Path Analysis of Influencing Variables on Quality of Life for Office worker Middle-aged males

Young-sook Seo, Chu-yeong Jeong*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약 본 연구는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일터 영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4곳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중년 남성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등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s과 AMOS 18.0 programs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모형의 적합지수는 RMSEA .05, GFI .98, AGFI .94, NFI .96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beta=.60, P<.001$)와 사회적 지지($\beta=.47, P<.001$)는 일터 영성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지지($\beta=.12, p=.002$)와 사회적지지($\beta=.12, p<.001$)는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가족지지($\beta=.10, p<.001$)와 사회적지지($\beta=.08, p<.001$)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일터 영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and quality of life (QOL) for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as well as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their QOL with the mediation of workplace spirituality. The participants were 288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 October to 30 November, 2016, through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using PASW 21.0, while the AMOS 18.0 program was us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the fitness of the final model was determined using RMSEA .05, GFI .98, AGFI .94 and NFI .96.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and QOL for the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Second, family support ($\beta=.60, p<.001$) and social support ($\beta=.47, p<.001$)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workplace spirituality. Third, family support had direct ($\beta=.12, p=.002$) and indirect ($\beta=.10, p<.001$), while social support also had direct ($\beta=.12, p<.001$) and indirect ($\beta=.08, p<.001$) effects on their QOL. The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workplace spiritual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and QOL of the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Keywords : Family support, Middle-aged male,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Corresponding Author : Chu-Yeong Jeong(College of Daegu-Health)

Tel: +82-53-320-1465 email: jcy0902@dhc.ac.kr

Received February 10, 2017

Revised (1st March 3, 2017, 2nd March 27, 2017)

Accepted May 12, 2017

Published Ma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은 의료과학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 남자 69세, 여자 76세에 비해 2014년에 남자 79세, 여자 85.5세로 증가하였고, 생애주기의 중년 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1/3을 차지하였다[1]. 또한 건강한 삶을 반영하는 지표인 건강수명은 2012년 남자 68.8세, 여자 72.5세로 보고되어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약 10년 정도이며[1], 이 시기의 건강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의 감퇴로 이어지며 개인의 전반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중년기는 40세의 성인기에서 64세까지를 포함하여 노년기로 가는 과도기이다. 이처럼 중년기의 건강관리 및 생활관리는 개인의 노년기의 건강과 건강수명,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발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2], 중년기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요구된다.

중년기는 자녀 양육과 부모세대의 봉양, 그리고 사회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생애주기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3]. 한편 현대사회는 가족계획 등으로 자녀 양육기간이 단축되어 탈부모기가 장기화되고[4], 경제 불황과 더불어 기업들의 구조조정, 조기퇴직, 실직 등을 경험하게 된다[5,6].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적응하는 경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져 중년기는 가족의 의미와 더불어 일의 의미가 생애주기 어느 시기보다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년남성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우리사회의 생산 활동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추역할을 담당하므로[3], 중년남성의 삶의 질은 가족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일터와 관련된 요인 등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은 1980년대부터 국가의 발전방향과 2000년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서 국민건강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어[4],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7]. 지금까지 삶의 질과 관련된 대부분 연구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과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시도되었으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8].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지지와 친구지지,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적 요인[6], 불안과 우울, 절망 등의 정서적 요인[4,9], 일

터 영성의 심리적 요인[10,11], 수면시간, 수면의 질 등의 생리적 요인[9,12]등에 관한 것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일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국내 중년 남성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고 밀접한 생활공동체이며, 개인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집단이다[13].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 시 하는 문화로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는 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이 작용하며[8], 사회생활을 공유하면서 조직문화의 영향이 강하고, 직장 내 동료, 주변인 등과 집단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년 남성의 공동체 문화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 국외 선행연구들[10,11]에서는 직장 내 상호작용과 일에 대한 내면적 의미부여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일터 영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14], 조직구성원의 일터 영성이 인적자원 개발 및 유지에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6,15,16]. 일터 영성은 일과 관련된 환경에서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요인[17]으로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진다[18]. 특히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으며, 일과 관련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중년 남성은 대부분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13], 일터 영성의 심리적 변수는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기여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중년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19], 일터 영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20,21]. 또한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일터 영성이 높아지므로[19], 중년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작간접적인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고, 일터 영성은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 삶의 질 등의 관련변인을 알아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일터 영성이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여 중년 남성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일터 영성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를 외생변수로 하는 가설된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다.

셋째, 구축된 경로모형의 검증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일터 영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정도 및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공분산 경로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와 U시에 소재하는 300인 이상 규모의 4곳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년 남성을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각 해당 3개 회사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면 날인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일반적 특성,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본 연구의 추정모수치는 20개 이내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추정모수치의 10배 이상 이므로[22],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부를 배포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278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공변량 구조분석의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가족 지지

가족 지지는 가족구성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20], 본 연구에서는 Cobb[23]가 개발한 도구를 Kang[6]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가족 지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88이었다.

2.3.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24], 본 연구에서는 Park [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2.3.3 일터 영성

일터 영성은 일과 조직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11], 본 연구에서는 Roh와 Suh[18]가 개발한 일터 영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내면의식 5문항, 일에 대한 소명의식 5문항,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5문항,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4문항,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터 영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84이었다.

2.3.4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를 의미하며[15,23],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도구를 Min, Lee, Kim, Suh와 Kim [19]이 번안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신체적 10문항, 심리적 4문항, 사회적 6문항과 환경적 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삶의 질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in 등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과 AMOS 19.0 programs 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모든 변수는 기술적 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둘째,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df ,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중분적합지수로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그리고 간명적합지수인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구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51~55세’가 47.5%,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57.9%, 종교는 ‘없다’가 65.8%, 결혼상태는 ‘기혼’이 80.6%, 자녀유무는 ‘있다’가 89.6%, 음주유무는 ‘한다’가 70.1%, 흡연유무는 ‘하지 않는다’가 53.5%로 나타났다. 규칙적 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8)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 45	63 (22.6)
	46-50	78 (28.1)
	51-55	132 (47.5)
	≥ 56	5 (1.8)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17 (42.1)
	≥ College	161 (57.9)
Religion	Have	95 (34.2)
	Have not	183 (65.8)
Marriage state	Have	241 (86.7)
	Have not(single, divorce, or separate, widowed)	37 (13.3)
Children	Have	249 (89.6)
	Have not	29 (10.4)
Drinking	Yes	195 (70.1)
	No	83 (29.9)
Smoking	Yes	130 (46.8)
	No	148 (53.2)
Regular exercise	Do	175 (62.9)
	Don't	103 (37.1)
Sufficient degree of household income	Lack	63 (22.7)
	Appropriate	199 (71.6)
	Enough	16 (5.8)
Health status	Good	41 (14.7)
	Moderato	136 (48.9)
	Poor	101 (36.4)
Duration since job (year)	≤ 20	72 (25.9)
	≥ 21	206 (74.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Variables

(N=278)

Variables	x1	x2	x3	y
Mean (SD)	3.23 (0.52)	3.04 (0.65)	4.34 (0.87)	3.29 (0.36)
Potential range	1-5	1-5	1-7	1-5
Skewness	0.68	0.14	0.64	1.01
Kurtosis	0.53	1.10	0.72	2.53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78)

Variables	x1	x2	x3	y
	r (p)	r (p)	r (p)	r (p)
x2	.67 (<.001)	1		
x3	.56 (.004)	.55 (<.001)	1	
y	.53 (<.001)	.54 (<.001)	.62 (<.001)	1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동유무는 ‘한다’가 62.9%, 가정의 수입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40.3%,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8.9%, 총 근무기간은 ‘20년 이상’이 74.1%로 나타났다[Table 1].

4.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와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skewness)는 절대값 3을 넘지 않았고, 첨도(kurtosis)는 절대값 10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변수의 정도와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 삶의 질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지지의 정도는 3.23점/5점,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3.04점/5점, 일터 영성의 정도는 4.34점/7점, 삶의 질의 정도는 3.29점/5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또한 가족 지지는 사회적 지지($r=.67, p<.001$)와 일터 영성($r=.56, p<.001$), 삶의 질($r=.53,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r=.55, p<.001$)와 삶의 질($r=.54,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 일터 영성은 삶의 질($r=.62,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본 연구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검증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73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55-.61로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17-1.79으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4.3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추정치, 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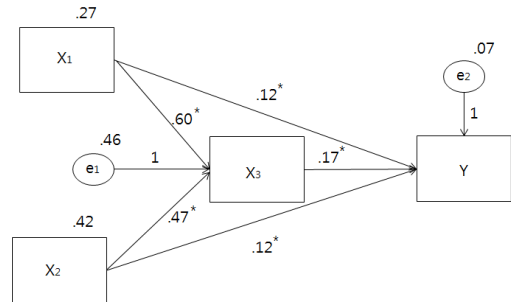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지수는 χ^2 값을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은 $\chi^2=0$ 으로 나타나 완전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chi^2/df=.000$, RMR=.000, GFI=1.00으로 나타나 χ^2/df 값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의 모델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또한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가족 지지는 일터 영성($t=6.45, p<.001$), 삶의 질($t=3.04, p=.002$)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t=6.30, p<.001$), 삶의 질($t=3.72,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또한 일터 영성은 삶의 질($t=7.72,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Table 5].

Table 4. Goodness for fit tests

(N=278)					
Goodness	χ^2/df	RMSEA	GFI	AGFI	NFI
Hypothetical path model	.000	.000	.99	.94	.9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AGFI=Adjust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hi^2/df<3$; RMSEA<.05; CFI>.90; AGFI>.90; NFI>.90.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 $p<.001$

Fig. 1. A path diagram of the study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278)			
Parameter	Direct effect β (p)	Indirect effect β (p)	Total effect β (p)
x1 → x3	.60 (<.001)		.60 (<.001)
x1 → y	.12 (<.001)	.10 (.002)	.22 (<.001)
x2 → x3	.47 (<.001)		.47 (<.001)
x2 → y	.12 (<.001)	.08 (<.001)	.20 (<.001)
x3 → y	.17 (<.001)		.17 (<.001)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가족 지지는 일터 영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 지지가 일터 영성의 직접효과는 .60($p<.001$), 삶의 질의 직접효과는 .12($p=.002$), 일터 영성이 매개되었을 경우 .10($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과는 .22($p<.001$)로 상승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일터 영성의 직접효과는 .47($p<.001$), 삶의 질의 직접효과는 .12($p<.001$), 일터 영성이 매개되었을 경우 .08($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과는 .20($p<.001$)로 상승되었다. 또한 일터 영성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는 .17($p<.00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각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인들 중에서 삶의 질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은 일터 영성이었고, 다음으로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순이었다. 이들 변인은 삶의 질을 45%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일터 영성의 효과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수는 일터 영성을 39% 설명하였다. 특히 일터 영성은 가족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5.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일터 영성이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근거로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로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여,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이었다. 이는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및 일터 영성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터 영성은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대상자의 일터 영성은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이 확인되었다.

먼저,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결과[4,8]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서 가족 지지가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된 결과는 중년기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급변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여 진

다. 중년기는 자녀들이 친구와의 밀접한 교류로 부모로부터 심리사회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부모세대의 사망 등으로 역할 상실감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중년 남성 자신보다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25,26]로 보여 진다.

한편 중년기는 가정, 직장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내·외적인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해야 하고, 동료와 후배들 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긴장과 불안을 겪고 있다. 이때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지지가 대상자의 내외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중년 남성은 가족의 구조가 안정적이고 가족 기능이 원활할 때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황 및 발달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인식하므로[8] 중년 남성은 가족으로부터 안정을 얻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인적 관계와 지원 정도, 정서적 유대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인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고 개인의 사회적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12]. 따라서 중년 남성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고 보여지며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긍정적 자원을 강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일터 영성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일터영성이 삶의 질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18,27]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터 영성은 일터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심리적 의미로, 일터 영성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에 대한 내면, 일에 대한 소명, 타인에 대한 공감,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등이 향상되어 결국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18], 조직적 차원에서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 효과성에 기여하게 된다[28]. 특히 중년 남성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으며[21], 또한 생산성의 발달과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신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삶의 질에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지와 친구, 동료 등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일터 영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을 고려한 다각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의 일터 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었으며,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일터 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일터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6]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중재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년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일터 영성을 위한 개입뿐 만 아니라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일터 영성의 정도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관리자는 가족과 사회적 영역을 사정하고, 각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자는 대상자의 가족과 일터 영역에서 개선 가능한 자원과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주변인, 일터 영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지지와 일터 영성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높으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터 영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중년 남성의 일터 영성을 위한 전략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초로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모형구축을 통해 가족, 주변인과 일 요인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였으므로, 중년 남성의 직무조직의 인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과 직장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년 남성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하여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경로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이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에 직접적 효과와 삶의 질에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일터 영성은 가족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직장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수 및 건강 교육 현장에서는 일터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 2015.
- [2] Y. J. Lee, G. J. Choi, "The effect of korean adult's mental health on qol(quality of life) the fif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 pp. 321-327, 2013.
- [3] G. H. Han, J. H. Kim, K. M. Kim, "Supportive and conflictual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of the middle-aged in Korea",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3, no. 2, pp. 155-170, 2003.
- [4] S. J. Han, M. S. Kwon, O. S. Yoon,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of middle aged women and 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vol. 19, no. 2, pp. 183-194, 2012.
- [5] K. L. Han, Y. K. Chung, J. O.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climacteric symptoms of midlife men",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3, no. 3, pp. 514-522, 2002.
- [6] Y. H. Ka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2, pp. 344-353, 2016.
DOI: <http://doi.org/10.5392/JKCA.2016.16.02.344>
- [7] E. Y. Park, I. S. Shin, J. H. Kim,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korean patients with a strok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42, no. 4, pp. 537-548, 2012.
DOI: <http://doi.org/10.4040/jkan.2012.42.4.537>
- [8] Y. H. Ka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Journal*

-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2, pp. 344-353, 2016.
DOI: <http://doi.org/10.5392/JKCA.2016.16.02.344>
- [9] H. S. Kim, K. Z. Yu,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male baby boom generation men",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24, no. 4, pp. 461-470, 2013.
- [10] W. R. Kolodinsky, A. R. Giacalone., L. C. Jurkiewicz, "Workplace values and outcomes: Exploring personal, organizational, and interactive workplace spiritu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1, pp. 465-480, 2008.
- [11] P. Petchsawang, D. Duchon, "Measuring workplace spirituality in an Asian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vol. 12, no. 4, pp. 459-468, 2009.
- [12] Y. W. Lee, "A study of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 4, pp. 539-549, 2002.
- [13] Y. A. Song,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actors and drinking/smoking among middle-aged men",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0, no. 1, pp. 13-25, 2013.
- [14] J. W. Suk, M. S. Koh, "Development of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instru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22, no. 1, pp. 99-108, 2016.
DOI: <http://doi.org/10.1111/jkana.2016.22.1.99>
- [15] H. S. Kang,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nsei University, Seoul, 1984.
- [16] J. W. Park,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17] S. R. Covey, "The leader in me: How schools and parents around the world are inspiring greatness, one child at a time", New York, NY: Franklin Covey Co; 2009.
- [18] S. C. Roh, Y. W. Suh, "The five-factor model of workplace spirituality: A conceptualization and scal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7, no. 2, pp. 419-447, 2014.
DOI: <https://doi.org/10.24230/ksiop.27.2.201405.419>
- [19] S. K. Min, C. I. Lee, K. I. Kim et al,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9, no. 3, pp. 571-579, 2000.
- [20] K. J. Kang, E. J. Lee,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elf-esteem of middle age women with degenerative musculoskeletal disease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7, no. 1, pp. 5-24, 2000.
- [21] H. K. Chang, "The study of fatigue, perceived health status, marital adjustment and stress in middle aged wo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9, no. 3, pp. 413-421, 2007.
- [22] H. S. Lee, J. H. I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7.0", Paju: Bubmunsu; 2008.
- [23]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pp. 300-314, 1976.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24] J. W. Park,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 [25] H. Y. Lee, J. Y.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rried middle-aged men's family resilience upon the stress cop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6, no. 23, pp. 169-192, 2011.
- [26] M. J. Kim, K. B. Kim,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150-158, 2013.
DOI: <http://doi.org/10.14370/jewnr.2013.19.2.150>
- [27] J. I. Kim, Y. D. Kim, "Construct dimensions & measure for workplace spirituality: Literature review for development of workplace spirituality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2011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pp. 51-71, 2011.
- [28] S. C. Roh, "The impa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13.

서 영 숙(Young-Sook Seo)

[종신회원]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만성질환

정 추 영(Chu-Young Jeong)

[종신회원]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보건